

12사사와 참 왕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사사기-

사사기 21:25, 요한계시록 17:14

정윤돈 목사님

“잔능하신 능력으로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기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아담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자옥같이 살다가 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이름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이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를 통하여 강단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한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 가지 악의 사이클을 반복하였다. 그것은 죄, 징계, 구원, 회개, 평화의 사이클이다. 이것은 사사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랬다. 삶이 문제가 없고 평화로울 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당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 진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앙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던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다. 우리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예배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징계와 어려움도 은혜이며, 회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받아드려서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인데, 이 사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계속해서 평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악의 순환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주된 흐름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사사기는 그 내용과 배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조금 이상한 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 이 사사기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사실적인 말씀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사랑과 완전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사사기를 주신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1) 사사기는 위드(With), 임마누엘(Immanuel), 원니스(Oneness)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많은 전쟁과 침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

엘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WITH이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이 할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야 완전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 모두가 임마누엘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족속(쫓아내지 못한 것)이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니스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 전도캠프, 훈련이며 교회이다. 원니스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2) 사사는 영적인 플랫폼(platform)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직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즉 nobody, notime, nowhere이다. 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여러분이 사사의 역할을 하시고, 그런 사사와의 만남이 있길 축원드린다. 우리 성도들과 캠프들이 위기의 시대에 그 가정, 산업, 학교 현장에서 완수, 대적,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

(3) 사사들은 렘넌트, 그루티의 역할을 한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4) 그러나 그 사사들은 모두 유한하며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 사사들은 이 땅에서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사사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 역할을 한다. 직장에서는 상관과 사장이 사사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실수와 잘못을 할 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와 희망을 둘 필요는 없다.

(5) 결국, 사사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민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었을 때 침된 구원과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완전복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다 보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결국 여러 가지 면이 완전해진다.

2. 두 번째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언약과 복음적인 미션을 함께 찾아보고 적용해보고자 한다.

(1) 사사의 단어적인 의미와 소사사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다. 한문의 뜻은 선생, 스승이라는 뜻이고, 히브리 원어는 ‘사파트’이고 그 뜻은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사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영적인 지도자, 행정관, 군사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였고 위기 때에는 갑자기 등장하여 구원자와 영웅과 같은 역할도 하였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은 웃니엘(3:7-11), 에훗(3:12-30), 삼갈(3:31), 드보라(4:1-5:31), 기드온(6:1-8:35), 돌라(10:1-2), 아일(10:3-5), 압다(10:6-12:7), 입산(12:8-10), 엘론(12:11-12), 압돈(12:13-15), 삼년(13:1-16:31)이다. 이중에서 6명의 사사는 활동한 기록의 분량이 많아 ‘대사사’라 불리고 나머지 6명의 사사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소사사’라 불린다. 사사들 중에는 주로 평화로운 시기에 활동을 했던 6명의 사사들이 있었다. 이 6명의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하며, 그들의 이름은 삼갈과 돌라, 아일, 입산, 엘론, 압돈이다.

이 중에서 삼갈은 소사사 중의 한 사람이지만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백 명을 죽였다고 짧게 그의 전적이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소를 모는 막대기로 6백 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자신의 목장 현장에서 성실하게 양과 소를 지키기 위해 들짐승과 싸우며 위기 때에 등장하여 백성을 구원한 인물이었다. 삼갈은 길게 쓰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시기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

다. 사사기 3장 31절을 보겠다. '에훗 후에는 아섯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의 다른 상징은 언약의 말씀을 한 가지만 확실히 붙잡아도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그물망처럼 다 연결된다. 감시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 진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

(2) 다음은 대표적인 대사사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① 웃니엘 사사이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갈렙의 동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웃니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사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과 응답,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스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 다미아 왕 구산 리사디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디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스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

② 사사 에훗은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80년 동안 평화를 지킨 장군이였다. 사사기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다. '그 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는 전략과 용기와 지혜가 있었던 사사였다.'

③ 다음은 기드온이다. 사사 기드온은 겉모습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사기 6장 13절을 보겠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 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율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 다 하니 기드온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불만, 불평을 한다. 이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적국이 모든 공물을 빼앗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 보면 포도주 틀로 타작을 했다고 나온다.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 기드온아' 부르는데 자신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니 화가 나는 것이다.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반박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다. 또한 양털과 이슬의 사건을 보면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사사기 6장 37절이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사실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확실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성격의 리더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 300명만 선택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장 맞는 팀을 붙여주신 것이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훑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많은 백성 중에서 1만 명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시다. 신중하고, 지혜롭고, 또한 연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④ 다음은 드보라이다. 사사 드보라는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사사인 바락과 함께 활동한 사람이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사로 백성들을 재판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는 사사 바락을 도와준 여자 중직자라고 볼 수 있다. 드보라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한 중직자였다. 또한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은 라마와 벨엘 사이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살고 있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라마는 후에, 마지막 사사이며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고향이고 무덤이 있는 언약의 땅이었다. 이와 같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사사들 중에는 웃니엘처럼 이름 있는 가문의 출신도 있었지만 압다처럼 기생의 아들도 있었으며, 삼손처럼 힘이 세고 강인한 용사도 있었다. 기드온처럼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도 있었다.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지도 있었지만 에훗처럼 적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 왕을 살해한 담대한 남자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근본적으로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⑤ 삼손이다. 특히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21장 중에서 4장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힘이 셸지만 여자의 유혹에 너무 약했다. 여느 인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죄인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 내었고, 마지막에는 자업자득이기는 하지만 두 눈이 뽑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우상의 전각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사사기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통령, 지도자, 법조인, 종교지도자들과 같이 지금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40장 23절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사사는 한 시대와 그 시점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은 대부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사사요 영적인 선생님과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사기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사사요, 유일한 그리스도로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참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사사기 안에서 우리들이 붙잡을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사사기를 통하여 붙잡을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사사이며, 참된 그리스도이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237 나라에 참된 왕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의 꿈은 램넛트와 중직자들이 여호와와 영에 감동되어 모든 분야와 현장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어 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란다. 이것이 완전복음을 체질화시키는 지름길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는 계속되는 불신앙의 싸이클을 오직복음, 완전복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끊어 보시기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응답과 축복의 흐름으로 변화될 것이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사사도 있고 부족한 사사도 있었지만 오늘 이 지리에 있는 램넛트들과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시대를 살릴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